

살때도, 팔때도, 현대 인증 중고차...전기차도 사고 판다

지난해 1월 이후 1057대 판매...연간 1만5000대 판매 목표 3월부터 전기차 구입·판매...연구소와 배터리 인증 방안 논의

현대차가 인증 중고차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출범 100일을 맞은 현대차는 올 3월 중고 전기차 판매를 시작하기로 하는 등 연간 1만5000대 판매를 목표로 나아간다. 5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100일간 현대차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판매된 차량은 총 1057대였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매로 넘긴 물량과 소비자로부터 사들였다가 되판 타 브랜드 차량을 합치면 1555대다. 차종별로 보면 그랜저가 181대로 가장 많았고, 쏘라토(89대), 팔리세이드(81대) 순이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경우 G80 128대, GV70 92대 등이었다. 현대차는 “그동안 ‘만든 사람이 끝까지 케어한다’는 인증 중고차 사업의 핵심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부터 사업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3월부터 판매 차종에 전기차를 추가한다. 차량 매입도 같이 이뤄진다. 아이오닉5·6, GV60 등 전용 플랫폼 기반 전기차 뿐 아니라 코나 일렉트릭을 비롯한 전동화 모델까지 제품군을 넓힌다.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기중고차 인증 방안을 그룹 기술연구소와 마련 중이다. 또 수도권에는 인증 중고차 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지금까지는 전국 2곳(경남 양산·경기 용인)에서만 인증 중고차 센터를 운영해왔다. 다양한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내차 팔기’ 서비스

를 이용한 고객들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작년에는 차량 견적 금액의 2%만 차주에게 추가 보상금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4%까지로 비율을 높였다. 예를 들어 차 가격이 2500만원으로 매겨졌을 경우, 지난해에는 보상금으로 5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났다. 인기 차종에 대한 전문 평가사의 방문 평가만 받아도 1만원어치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아반떼 AD(2019~2021년식), 그랜저 IG, 베뉴, 코나 1세대, GV80 2.5 터보(2020~2021년식), GV70 2.5 터보(2021년식)를 보유한 차주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내차 사기’ 서비스도 강화한다. 인증 중고차를 구입한 고객 모두에겐 스마트키 2개가 무료로 제공된다. 기존 차주가 스마트 키를 한 개만 반납했다라도 인증 중고차를 사면 추가로 한 개를 더 받는 식이다. 또 신차 보증기간을 넘겨나 잔여 보증기간이 1년·2만km 미만인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연장 보증기간(1년·2만km)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올해 총 1만5000대의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으로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검증한 수준 높은 중고차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전체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 인증 중고차 센터에서 검사원들이 차량을 정밀 진단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GGM, 캐스퍼 전기차 시험생산 돌입

7월 중순 본격 양산 대용량 배터리 장착 1회 충전 350km 주행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오는 7월 캐스퍼 전기차 양산을 앞두고 시험생산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시험생산은 본격 양산에 돌입하기 전 마지막 단계로, 실제 판매하는 차량과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시험생산은 오는 7월 중순으로 예정된 양산 직전까지 계속된다. GGM은 앞서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을 위해 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시 운전 등을 통한 시스템 구비를 완료했다. 캐스퍼 전기차는 대용량 배터리 장착을 위해 기존 차량보다 전장이 25cm 길어진다. 배터리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는 350km로 동급 대비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럽과 일본 등 54개국 수출을 위해 우측 운전석 차량도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디자인에도 변화를 줘 해외 소비자를 끌어들이 계획이다. GGM의 올해 생산 목표는 4만8500대다. 상반기 2만4000대, 하반기 2만4500대 생산이 예상되며, 하반기 생산 물량 중 70%에 해당하는 1만7000대는 전기차가 될 전망이다. GGM은 현재 1교대 생산 체계를 2교대로 확대



하기 위해 이날부터 43명의 신입사원 공채에 나섰다. 무엇보다 지난해 취임한 현대차 부사장 출신의 윤몽현 대표이사는 취임한 이래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최고의 전문가 영입에 나서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경험이 있는 김석봉 전 전무를 생산본부장으로 영입했다. 윤몽현 대표이사는 “전기차 생산과 수출에 성공

하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회사의 설립, 존속, 발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노사상생발전경영철서를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 모든 임직원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 기업문화를 완전히 정착,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경이로운 경쟁력을 가진 모범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활동

광주·곡성공장 인근 소외이웃에

금호타이어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 활동에 나섰다.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지난 1일과 2일 광주시 광산구와 곡성을 찾아 ‘이웃사랑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금호타이어 이웃사랑 캠페인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명절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의 사회공헌활동이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돼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전달하고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와 곡성공장 인근의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 200명에게 전달될 1000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물품은 광산구청, 광산구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서구 노인복지관, 곡성군 인면사무소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재호 광주공장 관리팀장은 “금호타이어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지역민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가 준비한 작은 정성과 마음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모두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3년째를 맞는 금호타이어 ‘이웃사랑 캠페인’은 현재까지 약 1만800여명의 이웃들에게 제수용품을 전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WDS 2024’ 방산전시회에서 ‘중형 표준차량’ 첫 공개

‘4X4 차량’·‘베어샤시 차량’ 2종



기아는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WDS 2024(World Defense Show 2024)’ 방산전시회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 WDS 방산전시회는 40여 개국 9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다. 올해 주제는 ‘평화를 지키는 모든 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모빌리티’로 기아는 전시회에서 ‘중형 표준차량’을 최초 공개한다. 먼저 중형표준차량은 1m 깊이 하천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기동성과 최대 16명의 수송 능력을 갖춘 차량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기아는 기본 모델인 ‘4X4 차량’과 프레임과 파워트레인만이 장착되어 있는 ‘베어샤시 차량’ 등 2종을 선보인다. 또 ‘소형전술차량 기갑수색차’, ‘수소 ATV(All-Terrain Vehicle) 콘셉트카’ 등도 전시한다.

소형전술차량은 강력한 동력 성능을 바탕으로 군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차량으로, 최근 폴란드 군용 차량 교체 사업 신규 차량으로 선정됐다. 이번엔 소개하는 소형전술차량 기갑수색차는 강화 방탄유리, 폭발 압력 완화 시트 등 안전사항을 높여 생존성을 한층 강화했다. 수소 ATV 콘셉트카는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소음과 발열이 내연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며, 천장과 문을 제거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WDS 2024에서 중형표준차량, 소형전술차량 기갑수색차 등 군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이동을 돕는 다양한 특수차량들을 선보였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혁신 기술을 적용한 특수차량들을 개발함으로써 군용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V9·카니발·니로...현대차그룹 차량 21종 美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즈’ 최고 모델에

기아 EV9와 카니발, 니로를 비롯한 현대차그룹 차량 21종이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지 카 앤 드라이버가 발표한 ‘2024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고 모델에 선정됐다. 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카 앤 드라이버는 1955년 창간한 자동차 전문지로, 매년 전문 에디터들이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세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을 시승하고 평가해 차급 및 부문별 수상 모델을 발표한다. 올해는 500여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브랜드별로 현대차는 아이오닉5(전기 SUV), 아이오닉6(전기차), 아반떼 N(스포츠 콤팩트 차), 쏘나타(패밀리 세단), 코나(서브컴팩트

SUV), 팔리세이드(중형 SUV), 쏘나타루즈(컴팩트 픽업 트럭) 등 7개 모델이 수상했다. 기아는 EV6(전기 SUV), EV9(전기 SUV), K5(패밀리 세단), 니로(서브컴팩트 SUV), 텔루라이드(중형 SUV), 카니발(미니밴) 등 6개 차종이 이름을 올렸다. 제네시스는 GV60(럭셔리 전기 SUV), GV70 전동화 모델(럭셔리 전기 SUV), G80 전동화 모델(럭셔리 전기차), G70(엔트리 럭셔리 자동차), G80(중형 럭셔리 자동차), G90(대형 럭셔리 자동차), GV70(컴팩트 럭셔리 SUV), GV80(중형 럭셔리 SUV) 등 8개 차종이 상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